

주요용어 : 성격유형, 입학성적, 학업성취도

일 대학교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임지영**·유일영***·오순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과 과학이 발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이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더 확대된 영역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어 간호사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재정의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alstead, et al., 1996).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합한 전문직 실무간호사는 지적 융통성, 창의성, 비판적 탐구력, 자신감 있는 수행능력 및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간호교육자들은 교과과정을 수정한다던가,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 전략에 적용하는 체계적인 노력은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영역, 가치관, 태도 등이 다르고, 또 학습자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며, 대처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교과과정의 수정만으로 지적 융통성과 비판적 탐구력을 지닌 자신감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학습자의 동기, 관심, 가치 및 태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학습자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Myers, 197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분야에서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는 간호사들의 성격유형이나 혹은 어떤 성격의 학생이 학교를 중퇴하느냐 하는 것이었다(Anchors, Robbins, & Gershman, 1989). 국내에서는 교육심리나 병원행정과정분야에서 졸업이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직무만족, 이직성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Kim, 1992; Kim, 1988; Kwon, 1998; Lee, 1986; Paek, 1997; Park, 1998; Yang, 1990; Yoo, 1988) 외에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입학성적 및 재학중 학업성취도와 성격유형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유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입학전형기준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진로상담 시에 학생들의 본성적 성향과 강점을 지지하고 개발하여 간호전문직 성장을 돕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학생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포천중문외과대학교 간호학과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투고일 2001년 5월 7일 심사외퇴일 2001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01년 10월 9일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성격 유형에 따른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하여 성격유형이 간호대학생의 입학전형기준과 교수방법, 그리고 진로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성격유형지표(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는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성격유형지표로서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Jung이 심리유형이론에서 제시한 심리적 경향의 선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며, 이러한 근본적인 선호성이 각기 다른 심리유형을 지닌 인간의 개인차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ark, 1998). 즉,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원칙이 없고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일관성과 상이성은 각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감각 대 직관),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행동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판단과정이 다르기 (사고 대 감정) 때문이라는 것이다(Paek, 1997).

MBTI는 성격의 성숙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며 선천적 경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MBTI에서의 선호경향에 관한 정보는 개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즉 자신의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가장 흥미롭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사용되며, 넓게는 배우자, 가족, 고용인, 동료 등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도 사용된다(Hirsh & Kummerow,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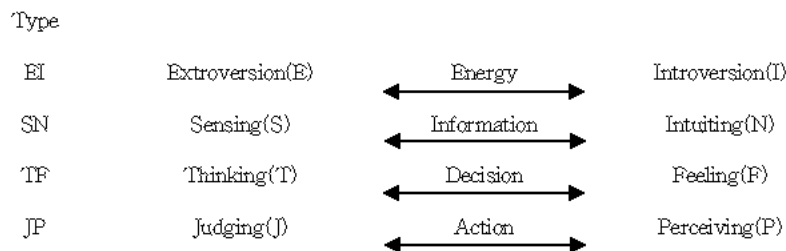
MBTI에서 나타내고 있는 선호성은 4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선호성은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식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2.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

성격은 한 개인이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 특유의 행동 및 사고의 양식이라고 정의된다(Choi et al., 1995). 각 개인의 성격은 그 유형에 따라 학습유형이 다르고 따라서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고 직무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Myers, 1974; Anderson, 1998).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서 J형, SJ형은 일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기통제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두서없이 한꺼번에 시작해서 하나의 일을 끝내는데 어려워하고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P형, SP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chors et al., 1989; Myers & Myers, 1980). 또한 졸업간호사들의 직무만족과 성격유형간의 분석에서도 J형, SJ형이 P형, SP형보다 직무만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Kwon, 1998; Paek, 1997; Park, 1998).

Provost, Carson, & Beidler(1987)는 성격유형에 대한 지식이 교과과정개발과 교수전략, 과제할당, 강의



<Figure 1> MBTI type

계획, 학생평가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고, Provost(1985)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 전형시 경쟁적으로 이전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재학생 상담시 지적인 능력보다는 성격유형과 같은 인성적 특성들이 성공적인 대학적응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의 성격유형에 따라 입학성적, 재학시 학업성취도, 전문분야별 관심도, 졸업 후 진로분야 및 임상수행 능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지닌 직관형,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고 상황적응이 빠른 인식형, 실질적 세계에서 천부적인 소질을 발휘하는 외향형, 자신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는 내향형 등 의학에서는 모든 성격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Myers, 1974). 또한 Myers(1974)는 입학생을 성적에 의존하여 선발하고 임상수행능력도 재학시 학업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변화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의 간호대학생 400명을 전수로 하여,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심리학자 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Briggs와 Myers가 개발한(1974) 성격유형 선호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로서 개인과 그룹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이다. 한국어판 MBTI는 Shim과 Kim(1990)에 의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번역과정과 표준화과정을 거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

되어 교육, 상담, 진로지도 및 직업선택, 문제해결 능력 훈련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한국어판 MBTI의 총 문항수는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지는 자기채점용(GS형)과 컴퓨터채점용(GA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GA형을 사용하였다. GA형 검사지의 신뢰도는 EI지표가 .86, SN지표는 .85, TF지표는 .81, JP지표 .88로 검증되었다.

입학성적은 내신성적이 입학년도별 반영비율이 달라서 수능성적만으로 환산하였고, 학업성취도는 최대값 40, 최소값 10의 각 학년별 평량평균과 전학년 총평량평균의 실점수로 측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절차

MBTI검사는 검사해석의 전문성과 검사사용의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 검사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수집 이전에 연구자가 먼저 MBTI 사용과 해석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연구변인의 특성상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총 4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년도에는 본 연구 대상자의 성격유형과 일반적 특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995년 5월에서 6월까지 약 한달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MBTI 전문교육을 이수한 연구자가 각 학년별로 재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MBTI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검사지를 배부하고 작성한 직후 회수하였다. 응답 자료들 중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자료들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입학성적은 1차년도에 대학교 입학관리처를 통하여 수능점수를 각 학년별로 모두 입력하였고 학업성취도는 간호대학의 교학부를 통하여 1995학년 1학기말부터 1998학년 2학기말까지 매년 1학기과 2학기의 평량평균을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수집하였다. 총평량평균은 4학년 2학기말에 총 8학기의 평량평균을 평균점수로 환산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의 자료는 MBTI 채점전문기관인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Excel로 입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관계는 SPSS Win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연구변인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격유형,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과의 관계는 two sample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two sample t-test와 ANOVA,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성격유형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는 two sample t-test, ANOVA 및 Chi-square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입학년도는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각 년도별로 64명에서 69명의 간호대학생이 응답하였으며,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성격이 맞아서”가 41.1%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되어서”, “봉사하는 전문직이어서”, “성직에 맞추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전공만족도는 68.3%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장래취업 희망분야는 임상이 전체의 45%를 차지하였고, 대학원진학은 24%를 희망한데 비해 지역사회 건강관리기관은 5% 미만이었으며, 간호학과 졸업

직후 복수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8.1%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성격유형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격유형 분포를 MBTI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각 지표별 선호경향을 살펴보면 태도에서는 외향성(E)이 54.4%로 내향성(I)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인식과정에서는 감각형(S)이 71.1%로 직관형(N)에 비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판단과정은 사고형(T)이 58.9%로 감정형(F)보다 더 높았으며, 대처양식에서는 판단형(J)이 64.4%로 인식형(P)보다 더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외부세계의 대처양식을 조합한 기질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SJ형이 51.5%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SP형, NT형, NF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양상이나 업무처리 양상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기능유형에서는 ST형이 41.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SF형, NT형, NF형의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MBTI의 4가지 지표(선호경향)를 조합한 16가지 성격유형의 분포를 보면 ISTJ유형이 17.4%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의 분포를 보인 유형은 ESTJ, ESFJ로 나타났으며 INFJ유형은 1.1%로 16가지 유형 중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3.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과의 관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
Year of admission	1995	64	23.7
	1994	68	25.2
	1993	69	25.6
	1992	69	25.6
Reason for majoring nursing	Profession	36	13.3
	Meet admission criteria	35	13.0
	Personality preference	111	41.1
	Employment opportunity	79	29.3
Satisfaction with nursing education	Very satisfied	28	10.4
	Satisfied	155	57.9
	Unsatisfied	82	30.4
Future plan	Hospital	121	44.8
	Graduate school	64	23.7
	Community nursing service	12	4.8
	Other	64	23.7

<Table 2> Distribution of personality type by preference

n=270(%)

		SN		Sensing (S)		Intuiting (N)	
		TF		Thinking (T)	Feeling (F)	Feeling (F)	Thinking (T)
EI		JP					
Introvert (I)	Judging (J)	ISTJ	n 47(17.4)	ISFJ	n 24(8.9)	INFJ	n 3(1.1)
	Perceiving (P)	ISTP	n 14(5.2)	ISFP	n 11(4.1)	INFP	n 7(2.6)
Extrovert (E)	Perceiving (P)	ESTP	n 12(4.4)	ESFP	n 16(5.9)	ENFP	n 16(5.9)
	Judging (J)	ESTJ	n 38(14.1)	ESFJ	n 30(11.1)	ENFJ	n 4(1.5)
							n 19(7.0)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성격유형을 지표별, 기질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수능성적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수능성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3>, 태도지표(EI)에서만 E형보다는 I형 학생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3.109, p=.002), 인식과정(SN)에서는 N형이, 판단과정(TF)에서는 F형이, 대처양식(JP)에서는 J형이 수능점수가 더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격의 기질유형에서는 NT형이 수능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SP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이들 유형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격의 기능유형에서도 NT형의 수능성적이 가장 높고, SF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성격유형과 입학성적간의 관계에서는 선호경향의 지표중 태도에서 입학시 E형의 성격보다는 I형의 성격유형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입학성적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격의 기질유형이나 기능유형은 입학성적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성격유형의 지표별로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도, 인식과정, 판단과정의 지표는 학년별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비해, 대처양식의 지표는 J형이 P형에 비해 전학년에 걸쳐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695, p=.000). 특히 J형과 P형의 학년별 평균폭평균의 차이가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는 점점 큰 점수차이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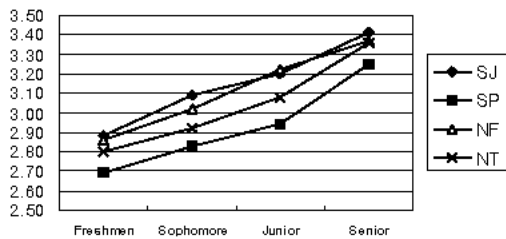
<Table 3> Comparison of SAT score of different personality type

Personality type	Mean SAT score	SD	t	p
E	Z-4.9	26.32	3.109	0.002
I	Z+4.9	24.90		
S	Z-1.0	27.15	-0.478	0.634
N	Z+0.6	23.48		
T	Z-0.6	26.26	0.049	0.961
F	Z-0.4	26.00		
J	Z+0.5	26.50	0.858	0.392
P	Z-2.4	25.41		

였고 이에 따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격의 기질유형별 학업성취도의 차이 <Figure 2>는 총평량평균에서 SJ형, NF형, NT형, SP형의 순서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4.992, p<.002$). 특히 SJ형과 SP형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SJ형은 SP형에 비해 1학년부턴 전학년에 걸쳐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이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후검증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기능유형별 학업성취도는 총평량평균에서 NF형이 가장 높고 NT형이 가장 낮았으나 각 학년별 평량평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igure 2> GPA trends of personality type

5. 간호대학생의 입학성적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입학성적인 수능성적과 재학시 학업성취도인 각 학년별 GPA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수 r=.10 이하로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입학성적은 재학시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높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6. 성격유형별 일반적 특성의 분석

성격의 지표유형에 따른 입학동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도지표에서 E형과 I형 모두 “성격이 맞아서”가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비해, 인식과정의 지표에서 N형은 “성격이 맞아서” 보다는 “취업이 잘 되어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 경우가 39.7%로 가장 높아 S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678, p<.022$). 판단과정과 대처양식의 지표는 입학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입학동기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4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취업이 잘 되어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S형 보다는 N형이, J형보다는 P형이, E형보다는 I형의 경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격의 기질유형별 입학동기는 “성격이 맞아서”가 SJ유형과 SP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NF유형과 NT유형은 “취업이 잘 되어서”라고 보고한 경우가 가장 높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chi^2=18.93, p<.026$) 기능유형별 입학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성격유형간의 관계는 지표유형에서 J형이 P형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t=2.538, p<.012$), 기질유형에서는 SJ유형이 가장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였고 SP유형이 가장 낮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572, p<.015$), 이는 사후검증결과에서 SJ유형과 SP유형간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성격유형별 장래취업희망분야에서도 JP지표와 기질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즉, 대부분의 성격유형에서는 장래취업을 임상분야에 이어 진학을 선택한데 반해 P형에서는 임상분야에 이어 진학보다는 건강관련기관을 비롯한 타전공 등의 기타 내용이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14.68, p<.002$), 기질유형에서는 SP형과 NT형이 SJ형, NF형에 비해 임상분야 다음으로 진학보다는 다

<Table 4> Correlation of between SAT score and GPA n=270

	SAT score	GPA (Freshmen)	GPA (Sophomore)	GPA (Junior)	GPA (Senior)
SAT score	-	0.086	0.055	0.095	0.081
GPA(Freshmen)		-	0.616**	0.530**	0.486**
GPA(Sophomore)			-	0.742**	0.618**
GPA(Junior)				-	0.712**
GPA(Senior)					-

*p < .05 ; **p < .01

<Table 5> Comparison of future plan of different personality type

Personality type	Hospital	Graduate school	Community nursing service	Other	χ^2	p
E	63(42.9)	36(24.5)	8(5.4)	36(24.5)	0.706	0.872
I	58(47.2)	28(22.8)	5(4.1)	28(22.8)		
S	91(47.4)	47(24.5)	9(4.7)	40(20.8)	3.499	0.321
N	30(38.5)	17(21.8)	4(5.1)	24(30.8)		
T	69(43.4)	37(23.3)	5(3.1)	42(26.4)	3.606	0.307
F	52(46.8)	27(24.3)	8(7.2)	22(19.8)		
J	83(47.7)	49(28.2)	5(2.9)	32(18.4)	14.680	0.002
P	38(39.6)	15(15.6)	8(8.3)	32(33.3)		
SJ	67(48.2)	41(29.5)	5(3.6)	21(15.1)	24.74	0.003
SP	24(45.3)	6(11.3)	4(7.5)	19(35.8)		
NF	10(33.3)	8(26.7)	4(13.3)	8(26.7)		
NT	20(41.7)	9(18.8)	-	16(33.3)		
ST	49(44.1)	28(25.2)	5(4.5)	26(23.4)	12.78	0.17
SF	42(51.9)	19(23.5)	4(4.7)	14(17.3)		

른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4.24, p<.003$).

V. 논 의

서울의 일 대학교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MBTI로 분석한 결과, 내향성보다는 외향성이(54%), 직관형보다는 감각형이(71%), 감정형보다는 사고형이(59%), 인식형보다는 판단형이(6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도는 한국의 기초표준 성격유형(Shim & Kim, 1990)에서 일반 여성집단 5,795명 중 내향성이 55%, 외향성이 45% 이었고, 여자대학생 2,356명 중 내향성 58%, 외향성 42%의 분포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호학의 학문적, 실무적 특성이 타인 및 주위세계에 대한 탐색과 구체적인 활동에 더 치중되어 있으리라는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의해 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과와 입학동기가 “성격이 맞아서” 및 “봉사하는 전문직이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는 것과 간호학과와 특성을 반영하여 외향성의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기질유형의 분포를 보면, SJ형이 51.5%로 가장 많았고 SP, NT, NF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일반인 여자들과 여자대학생들의 표준유형의 분

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SJ유형은 인내심이 강하고 같은 일을 상실하게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지니면서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에 소속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Myers(1974)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격유형은 간호학 전공에 적성이 맞는다고 하겠다. NT유형은 한국인 표준보다 약간 높은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는 NT유형이 논리적이면서 지식에 관심이 많고 능력을 중시하여 복잡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흥미가 높은 기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에 적성이 맞는다고 하겠다.

MBTI의 16가지 유형별 간호대학생들의 분포에서 ISTJ, ESTJ, ESFJ, ISFJ 등의 4가지 유형이 전체의 51.5%를 차지하였다. MBTI 이론에서 특정 유형이 선호하는 직업의 종류가 있고, 같은 직업 내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분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유형들은 이미 MBTI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로 적합한 유형이 ESFJ유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것을 지지해준다. 주목할 것은 한국 표준유형에서 가장 적은 16번째 유형인 ENTP형은 본 연구에서는 9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정 관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외식적인 선택을 통한 진로결정은 그 분야에 흔하지 않은 유형이 참여함으로써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Shim & Kim, 1990). 그러므로 특정 유형이 특정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은 물론, 각

유형이 갖는 선호경향의 특성을 특정학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 분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간호사의 성격유형이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선택하는데 반영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입학성적과의 관계 분석에서 본 연구결과는 태도지표 중 내향성의 입학성적이 외향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MBTI 유형이론을 적용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적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외향적 사람보다는 내향적 사람들의 성적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Anchors, Robbins, & Gershman, 1989; Anderson, 1998; Kim & Shim, 1995).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별 재학중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입학성적시에는 EI지표에서 차이를 보인 반면, 재학중 학년별 평량평균은 JP지표와 기질유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P형보다 J형의 평량평균이 그리고 SP형보다 SJ형의 평량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오는 것은 MBTI 유형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Myers & Myers, 1980; Lawrence, 1984; Myers & McMauley, 1985; Kalsbeck, 1987; Provost, 1987; Anchors, Robbins, & Gershman, 1989; Huitt, 1992).

비록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성격유형별 입학성적과 재학중 학업성취도의 결과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입학성적과 재학중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에 의존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입학전형제도에 재고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해준다.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나 대학 입학을 위한 학력고사, 수능시험 등에만 의존해서 선발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로 양성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선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성적이나 내신등급은 일정수준으로 하여 지원자격으로만 포함하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지닌 직관형,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고 상황적응이 빠른 인식형, 실질적 세계에서 소질을 발휘하는 외향형 등의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단순히 성적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미래에 간호학에 공헌할 수 있는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시사점은 입학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사를 배출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NT유형은 입학시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이었는데 재학 중에는 학업성취도가 낮았으며, SP유형은 직전 학년에서 높은 성적을 성취하였더라도 다음 학년에서 잘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를 보였고, SJ유형은 1학년의 성적이 우수할 경우 4학년의 성적을 유추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성취도를 보여 준 것 등은 성격유형별 교과과정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간호학과 교수들은 간호학 교육을 위해 어떤 교수방법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Ostrow, 1986). 학업성취도는 적성, 적용, 흥미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볼 때, 성격유형이론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발휘할 적용과 흥미에 대해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며, 적성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성, 적용, 흥미에 맞는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Lawrence(1984)는 교사의 교육장면을 관찰한 결과 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교수방법이 다르게 나타났고 따라서 교사-학생의 관계에서 학생들의 반응양상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아직 간호교육에서는 이러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성격유형이론을 교수-학습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교수-학습전략에 성격유형이론을 도입하고 적용함은 학생의 개인차를 발견하고 본성적인 강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선택, 교수매체활용, 의사소통기술사용, 학교생활지도 등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Kim & Shim, 1995). 예를 들면, 내향성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강의법을 선호하고 경험학습 이전에 중요한 개념을 인지하는 학습을 더 좋아하며 독립적인 작업, 경청, 쓰기를 좋아하는 등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문제점을 예견하고, 계획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려는 경향을 지닌 반면, 외향성을 지닌 학생들은 시행착오 양식을 좋아해서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개념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강의법보다는 교수와 함께 대화하는 학습법이나 그룹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Myers, 1974). 교육내용의 특성과 이러한 학습자 유형을 짝지어 교수-

학습전략에 계획하고, 성격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활용한다면 교수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면서 성취도도 높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N형을 비롯한 NF형, NT형들이 입학 때의 의도와는 달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은 현재의 간호교육이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고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성격유형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개인에게 있어 성격유형을 고정된 틀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성격유형은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환경과 역할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성장 발달 해나가면서 개인의 선호기능과 열등기능들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것이므로 각 유형별로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성격유형의 결과에서도 P형과 SP형이 모든 성격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직무만족도와 가장 높은 이직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1998). 이와 관련하여 Astin(1984)은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지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하면서 J형보다 P형이 지속성 비율이 매우 낮고 지속성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학업성취도 역시 매우 낮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Provost(1985)는 지속성이 낮은 유형의 학생들을 위한 초기중재와 예방전략을 제안하였다. 즉, 지속성이 낮은 유형의 학생들을 “고위험” 학생으로 명명해 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있는 학생으로 인정하고 잠재되어 있는 상황을 개발하여 대처행동이나 새로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중재를 대학 초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SP유형의 경우 1학년의 성적이 이후 학년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4년간 가장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인 결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적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입학성적이 비슷한 일개 간호대학의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우수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는 입학기준을 수능성적이나 필답고사 등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MBTI의 성격유형 중 학업성취도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직관형의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은 어느 특정한 인성만이 아닌 모든 유형의 인성이

필요하다. 감정형은 환자나 가족의 간호에 있어 열정을 보여줄 수 있고, 내향성과 직관형은 간호의 과학적 이론 개발에, 그리고 감각형은 중환자실과 같은 고도의 간호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학시 특정 성격유형이 유리한 현 입학제도에서 볼 때 모든 인성유형의 간호사가 다 필요로 되는 우리의 간호현실에서는 이점을 다시 숙지해야 할 것이다. 즉, 간호교육에 있어 성격유형이론을 도입하여 적용함은 간호학과 사회에 가장 유용한 전문인이 될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와 선발한 학생을 어떻게 최대한의 능력을 지닌 간호사로 육성하느냐에 대안을 줄 수 있다.

또한 입학시에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확인하여 교수방법이나 학업상담을 시행한다면 간호학생들에게는 학생생활만족도나 학업성취도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졸업후 진로방향을 결정하는데 지침으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취업시 직무만족도를 증가시켜 간호사의 이직율을 저하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대한 추후연구의 방향과 간호실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가 일개 대학에서 시행되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성격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전략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의 영향요인으로 교수의 성격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4.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별 졸업후 취업현황, 직무만족도, 이직성향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5. 본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된 휴학생, 자퇴생 등에 대한 성격유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Reference

- anchors, W. S., Robbins, M. A., & Gershman, E. S.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ian type and persistence to gradu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 of Psychological Type, 17*, 20-25.
- Anderson, J. K. (1998). Orientation with style: Matching teaching learning style. *J Nurses Staff Dev, 14*(4), 192-197.

- Astin, A. W. (1984). Student involvement :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297-308.
- Choi, J. H., Lee, H. K., Han, J. C., Yoon, J., Chung, C. S., & Oh, K. J. (1995).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Pub Moon Co. : Seoul.
- Halstead, J. A., Rains, J. W., Boland, D. L., & Frederick, E. M. (1996). Reconceptualizing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outcomes and competencies for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J of Nurs Educ*, 35(9), 413-416.
- Hirsh, S., & Kummerow, J. (1997). *Personality type and life style*.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Research Center : Seoul.
- Huitt, W. G. (1992). Problem solving & decision making: Consider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using the MBTI. *J of Psychological Type*, 24, 33-44.
- Irvin, S. M. (1990). Creative teaching strategies. *The J of Contin Educ Nurs*, 27(3), 108-114.
- Kalsbeck, D. H. (1987). Campus retention. The MBTI in institutional self-studies. In J.A. Provost, & S. Anchors(Eds). *Applications of the MBTI in higher educ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im, E. Y. (1992). *Nurses' personality type and job satisfaction*.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J. T., & Shim, H. S. (1995). *Questions and answers of MBTI*.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Research Center.
- Kim, J. Y. (1988). *Personality type of clinical nurses and job satisfaction*.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won, Y. H. (1998). *Relationship between nurses' personality type and job satisfaction*. Thesis. Myung Ji University. Seoul.
- Lawrence, G. (1984). A synthesis of learning style research involving the MBTI. *J of Psychological Type*, 8, 2-15.
- Lee, S. L. (1986).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of clinical nurses and job satisfaction*.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Myers, I. B. (1974). *Relevance of type to medical educ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5). *Manual :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BTI*.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yers, I. B., & Myers, P. B. (1980). *Gift differing*.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Ostrow, C. L. (1986). The interaction of cognitive style, teaching methodology and cumulative GPA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of Nurs Educ*, 25(4), 148-155.
- Paek, S. H. (1990).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resigna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of nurses*. Thesis. Seo Kang University. Seoul.
- Park, H. S. (1998).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of nurses, job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Thesis. Sook Myung University. Seoul.
- Provost, J. A. (1985). "Type watching" and college and attribution. *J of Psychological Type*, 9, 16-23.
- Provost, J. A., Carson, B. H., & Beidler, P. G. (1987). Teaching excellence and type. *J of Psychological Type*, 13, 23-33.
- Shim, H. S., & Kim, J. T. (1990). *A Study of Korean Standardization of MBTI*. Seo Kang University, MBTI Research Center. Seoul.
- Yang, K. M. (1990).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of nurses and job satisfaction*.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Yoo, Y. H. (1988).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to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Abstract -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 Nurses*

Lim, Ji-Young** · Yoo, Il-Young***
Oh, Soon-Nahm****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college admission SAT scores and GPA scores of student nurses.

Metho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70 student nurses enrolled in a baccalaureate program in Seoul. MBTI was used to identify students' personality and SAT score and GPA score were collected over 4 year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Win package.

Result: 1. There were slightly more extrovert (E) type (54.4%) students than the introvert (I) type; more sensing (S) type

(71.1%) than the intuitive (N) type. 2. The introvert typ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SAT scores than those of the extrovert type ($p<.002$). 3. The judging typ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GPA scores throughout their college years than the perceiving type. 4.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AT and GPA scores. SAT scores did not accurately predic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college in this sample.

Conclusion: The distribution of the personality types in the sample wa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opulation which may suggest that college admission criteria is biased toward certain personality type. Since different personality types process information and cope with the outside world differently,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need to be considered for each class.

Key words : MBTI, Personality type for student nurses, Admission criteria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aculty student research grant o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Pochun Cha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Head nurse, Department of nursing staff education and train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